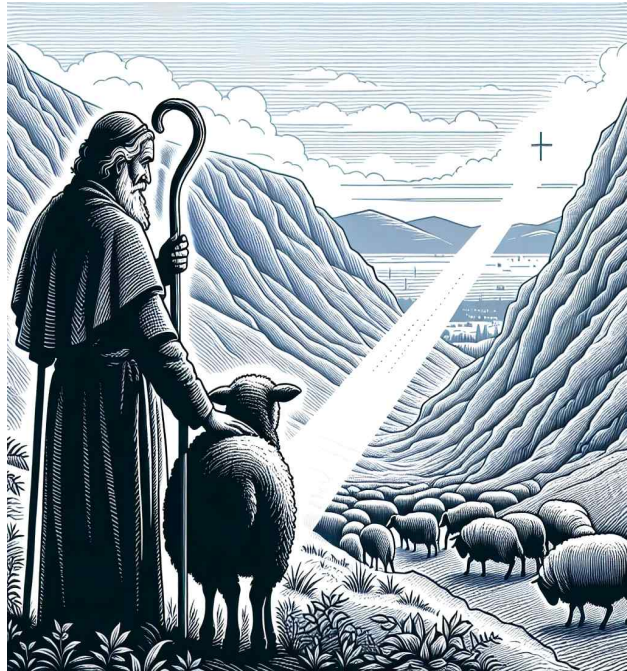


바르게 배우는 교회•행하는 교회•전하는 바로 그 교회

제41권 7호

2025.2.16

짧은 글 깊은 생각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고난입니다.

도망가다가 고난을 면해보려고 하다가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악해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불가피하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아십니다.

예수께서 심문을 당하실 때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으나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으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 2부:오전11시 |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갈 이
경배찬송	1장	다 갈 이
성서교독	2번 시2편	다 갈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70장	다 갈 이
기 도		1부 김실근집사
		2부 박 호 집사
성경봉독	느헤미야1:1-5	인 도 자
찬 양	계시는 주	성 가 대
설 교	듣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365장	다 갈 이
헌금봉헌	헌금함에	다 갈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갈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금주의 말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1:2-3

삼일예배 |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황순화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예배소서교회론(37)5:6-7-속지 말라
찬송/ 459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 성경- 요한복음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소식

- 1. 1,2월은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2.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속지 말라”
- 3. 이번주 주보 성경공부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 4. 유초등부 봄성경학교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14.15일)
- 5. 21일 오전10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 6. 22일(토) 진중세례식
논산육군훈련소 군인교회 오후2시 인원-2,700명

■■■ 맑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김장옥 오종수 2층 고지영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김실근 박 호	김현진/생일감사
다음주	1층 김실근 이길연 2층 고지영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오종화 김장옥	문서연/생일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02,21) 9구역(유은희)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2,28) 10구역(황순화)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시편 97편 12절 제 목 -거룩하신 하나님	활동 1.2월 암송말씀은 대상 29장 11절입니다. 2.오늘 활동은 미로찾기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송춘자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시편 97편 12절 제 목 -거룩하신 하나님	1.2월 암송 말씀은 대상 29장 11절입니다. 2.봄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봉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간실천카드 꼭 해오기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김자연 자매 기도자 -박혜진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창세기 40장 20-23절 제 목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2)	1.2/23(주) 대표기도는 백가는 자매입니다. 2.개인면담 및 반별 교제를 시작합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강찬식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여호수아 18장 1~10절 제 목 -전진하는 신앙생활	1.2월 23일(주일) 대표기도는 김금모형제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9: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기독교 기본생활

본 내용은 대덕연구단지 직장성경공부에서 10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의 일부이다.

제 46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믿음도 있고 열심 있던 사람이 서서히 영적인 침체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종종 보게된다. 마치 건강하고 활기 있던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점점 약해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과 같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주님과 교제를 게을리하고 조금씩 멀어져 가므로 육신의 정욕과 마귀에게 정복 당하기 시작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낙망하고, 불안하고 영적인 자유를 잃고 기쁨을 잃고 윤기 없는 활기 없는 영적인 무능력에 빠진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하향. 이 말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교만해 하지 말아야 한다.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고전 10:12)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 16:18) 영적으로 침체된 분에게는 좋은 안내가 되기를 바란다.

1. 영적으로 침체된 모습(상태)

1) 성도와와의 교제를 등한히하고 불신자와 교제에 더 관심을 갖는다.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한 때는 믿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영적인 문제를 서로 나누고 신앙 체험을 서로 간증하며 즐거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끼리의 교제는 시시해 보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부담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자연스러워지게 된다. 지금 당신의 형편이 그렇다면 영적인 회복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끼리는 예수 의 피로 맺어진 혈연적 관계이다. 세속적인 관계를 멀리하고 성도의 교제를 돌아보라. 시1:1-2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다. 성도의 친교를 먼저 회복하자. 신실한 성도와 연합된 관계를 가지자. 이로써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다.

2) 예배 참석하기가 싫어진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힘이 들고 싫어진다면 당신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배에 빠지게 되고 성경공부 모임 등에 대해서 등한해진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25) 영적인 활동과 성숙을 위해서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성장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데 있었던 것을 안다. (행 2:42, 46) 주말여행, 휴가, 오락, 약속 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회방 받기가 쉽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하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께서 마련한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되고 많은 영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 할 때에 회복될 것이다.

3) 개인기도(골방기도)가 없어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영적 호흡을 게을리 할 때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놓치고 만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친히 본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 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주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6)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할 때에 영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다. 기도를 회복하자. 다시 골방을 만들자. 새로운 기쁨이 솟아 날 것이다.

4)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감각 해진다.

일단 영적으로 침체한 상태에 빠지면 날카로운 칼 끝이 무뎌져서 녹슨 칼과 같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 할 수 없게 되고 관심도 없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보면 괴로워 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탄식하게 된다. (롬 7:19-24) 그러나 영적으로 내리막 길을 걷게 되면 죄에 대해서 관대해 지고 타협하고 자꾸 변명하고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죄 앞에서 무능력해지고 만다. 엡 4:18 “저희 총명이 어두어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다. 19절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라고 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감격이나 감동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다. 죄악을 벗어 버리고 돌이키자. 죄를 증오하고 버리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자가 되어서 조그만 죄 하나라도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회개하자 (요1서 1:9)

2.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

1) 자신의 상습적인 약점에 굴복당하기 때문이다. : 번번히 죄 짓게 하는 약한 부분들을 마귀는

집중공격한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당하면 영적인 타락으로 몰아넣게 된다. 마귀가 약한 부분을 자꾸 총동질하고 자극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극복하고 이겨나가자. 주님은 도우신다.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 약점을 이겨내고 있는가?

2)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 땅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위에 것을 찾아야 한다. (골 3:1-3) 성도의 시민권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빌 3:20) 그래서 영원한 일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영적으로 하향하게 된다. (눅 16:13)

3) 감사 감격하는 생활을 게을리 할 때 영적으로 침체 된다. : 조그만 것이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결국 교만해 지고 스스로 넘어지고 만다. (약 1:17, 신 8:10-14)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스스로의 공으로 돌릴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

4) 슬픔, 불안, 좌절감 등을 마음에 두고 살 때에 침체 된다. : 어려운 일에 빠지면 괜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감상에 젖게 되면 자연히 기도가 막히고 예배도 빠지고 만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사로 잡지 못하도록 하거나 스스로 불행하는 생각과 비탄에 빠지면 신앙은 정지 되고 썩고 만다. 영적인 침체가 온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빨리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라. (왕상 19:4, 민 11:15) 당신을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문제는 무엇일까?

3.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계 2:5)

영적 침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파고들고 침식시킨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에 가서야 후회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1) 생각하라 : 과거에 주신 은혜 생각, 첫사랑을 생각하라. 또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문제를 찾아내라,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죄가 무엇인지 냉정히 생각하고 찾아내라

2) 회개하라 : 문제점이 발견되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한다. 합리화 시키거나 묵인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라. 고통스럽겠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그대로 드러내 놓고 애통하며 “제가 잘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말라. 용서하신다.

3) 돌이키라 :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 2:5)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라. 처음 열심, 기도,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렘 3:22, 호 14:4, 계 2:10)

나눔식 소그룹 요한복음 13:12~20(2월 17일 본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하나님 찬양하기 * 나의 생명 되신 주 (새 380)

Focus :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습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요한복음 13:12~20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14~6장)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주요 사건으로 다룹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세족식)을 기록합니다. 당시에 남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자기 비하(헬라어로 '케노시스')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5절)

적용과 나눔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2. 관찰과 묵상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시면서 구약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셨나요?(18절)

적용과 나눔

깊이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금 그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예수님은 한 율법 교사와 대화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마 22:37~39).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 주신 실천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마저 품으신 그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참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존귀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저를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셨는지 마음에 새깁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상대를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제게 부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1. 과도한 사교육 현장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도록, 또한 그들이 전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이슬람교의 발상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하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의 부리가 뽑히고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기도합니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 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 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교회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신혜원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황학성 이상열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